

# LG, 5년간 100조 국내투입... “올해 차별적 고객가치 매진”

## 정기주총서 중장기 전략 발표

구광모 회장, 사내이사에 재선임 AI·바이오·배터리·자동차 부품 등 성장분야에 국내 투자액 50%투입 “사업전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과 낼 것”



LG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50조원 가량을 투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그룹은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LG의 글로벌 총 투자 규모의

65%에 해당한다.

LG는 AI,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국내 투자액의 50%를 투자해 미래 성장 전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만 5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를 첨단 연구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전경. /뉴시스

권봉석 ㈜LG 부회장이 대독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LG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넘어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2024년은 경기 둔화와 지

정확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AI의 보편화·일상화, 탈탄소 전환 등 산업의 변곡점들이 뚜렷해지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한해 ‘차별적 고객 가치’와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주력 사업은 전후방 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사업 전반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는 단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사업은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력 사업화하고, 미래 사업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LG그룹은 ‘고객 가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한편, 구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LG그룹은 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함께 ▲제62기 재무제표 승인 건 ▲정관 변경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결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뚝꿍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SK하이닉스, 美에 5.3조 투자 대규모 HBM패키징 공장 건설

美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28년 완공... 일자리 1000개 예상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등을 최첨단 칩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탐색 중이며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한화 5조 3000억원)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연방과 주 정부 세금 혜택 등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800~10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미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마이크로 전자공학 프

그램을 운영 중인 퍼듀대학교가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최첨단 칩 패키징 시설은 현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최초의 대규모 HBM 패키징 시설이 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칩 법(US Chips Act)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오는 4월 12일까지 최첨단 칩 패키징 시설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세미아널리스트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기기비트 트 기준으로 HBM 시장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도로 접도요건 완화... 중곡동·묵동 등 혜택

>> 1면 ‘정비사각지대 용적률’서 계속

공공기여 부담도 된다. 시는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강남·북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0%로 낮춘다. 또 시는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종전 0.7에서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공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도로 접도 요건이 6m 미만으로 완화된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야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된 광

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이 여기에 해당해 재개발시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4m 도로면 골목길에 차량 1대만 있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불가해 6m로 완화했다”며 “이 경우 서울시내 재개발 가능 구역이 484만㎡에서 1190만㎡로 약 2.46배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20m로, 고도지구는 20m→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손질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